

광주 전통시장 '夜시장'이 뜬다

송정역시장 - 개성 넘치는 이색가게·줄지은 인증샷 '진풍경'
대인시장 - 예술상품에 먹거리도 풍성 ... 토요일엔 '불야성'
남광주시장 - 다문화 음식+남도음식 '아시아 푸드'로 특화

대인시장과 송정역시장, 남광주시장 등 광주지역 전통시장이 되살아 나고 있다. 일선 지자체와 국내 대기업의 지원 속에 예술가와 청년 상인이 잇따라 전통시장에 등지를 틈서 활기를 불어 넣고 있다. 또 낡은 시장 풍경과 예술의 만남을 통해 문화 명소가 됐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소비자와 관광객이 차분히 머물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늘리고, 기존의 상인들과의 시너지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7시 광주 송정역시장 입구의 시계탑에는 휴대전화 사진을 찍기 위한 줄지어 선 젊은이들로 진풍경을 연출했다. 커다란 시계와 '1913 송정역시장'이란 글씨가 새겨진 하얀색 건물을 배경으로 찍은 밤사진은 최근 페이스북 등 SNS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날도 많은 시민이 사진을 찍기 위해 길게 줄지어 있었다.

젊은이들의 특목 튀는 아이디어도 달라진 송정역시장을 더욱 빛나게 한다. 오래 전 문을 닫은 새마을금고 건물에는 이색 하우스맥주집이 들어섰고, 각각의 라면을 모아 파는 27살 여자 시장도 송정역시장의 유명 인사가 됐다. 이 하우스맥주집은 주인이 손수 가게 탁자 등을 만들고 술을 제조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날도 가게 안에는 손님이 가득했다.

이 밖에도 어묵, 초코파이, 계란밥, 부침 등을 파는 젊은이들도 소비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사투리를 가미한 디자인 제품을 파는 곳에도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광주창조센터와 현대차그룹의 도움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새 단장한 이곳은 사람으로 북적였다.

광주대인시장도 밤마다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다. 최근 대인 예술시장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150여명의 셀러들이 갖가지 상품을 팔고 있으며, 대인시장 70여개 점포 상인들도 손님을 맞고 있다. 맛있는 음식과 수제로 만든 장신구를 파는 곳은 손님들이 가게 입구에 20~30m 줄을 서서 대기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한다.

이곳에서 다양한 예술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별장프로젝트 사업단은 올해부터 여러 매체의 문화예술을 야시장에 접목시켜 예술색을 더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남광주시장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남광주시장은 다문화음식과 남도음식을 융복합한 '아시아 푸드'와 남광주시장의 수산물용 이음용 '향토포드' 중심 야(夜)시장이 개설된다. 기존 대인시장은 수공업예술품, 새로 조성할 남광주 야시장은 먹을거리 중심으로 특화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동구정에서는 남광주시장·남광주해뜨는시장 상인회와 함께 야시장 조성 추진단을 구성해 올해 2월부터 기본설계 등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광주양동복개 상가 상인들도 최근 공동 브랜드 '더 잇다'를 선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 (2면으로 계속) /김대성·오광록기자 bigkim@kwangju.co.kr



夜! 好! 후끈 야시장 지난 1일 오후 7시 광주 송정역시장에 시민과 관광객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곳처럼 최근 광주 전통시장이 젊은 상인의 이색 아이디어와 예술의 옷을 입고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래는 지난달 23일 밤 9시 타이베이의 스린 야시장 풍경. 각 국의 관광객들이 몰려 발 디딜 틈이 없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김종인, '호남 대망론'으로 민심 달래기

영암 대불산단·전주 탄소융합기술원 방문... 전남도와 정책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2일 광주를 방문한지 일주일만에 다시 호남을 찾으며 뒷발 달래기에 나섰다. 더딘 주는 호남의 28개 선거구 중 전북에서 2석, 전남에서 1석만 각각 건지면서 국민의당에 주도권을 뺏긴 상태다. 김 대표는 특히 이날 전주를 비롯한 전북·전남 일정을 소화

하면서 호남 참패를 반성하는 한편 '호남 대망론'을 강조했다. <관련기사 3면>
김 대표는 전북도의회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전북 민심이 신뢰할 수 있는 대선주자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대선주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전국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대

선호표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월 광주·전남을 방문하면서 "총선이 끝나면 여야의 대권 후보가 여기 저기서 나올 것"이라면서 특히 "호남인들의 소망을 더민주와 제가 완벽하게 대변해드리겠다"고 '호남 대망론'에 불을 지핀 것과 일맥상통하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엔 전주에 있는 한

국탄소융합기술원을 방문, 총선 공약인 탄소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대표는 이어 영암 대불산단까지 이동, 현장 간담회를 열고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입주기업 대표들의 고충을 들었다. 간담회에서 기업대표 등은 대불산단의 업종 전환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중소기업의 대출조건 완화,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정 등을 건의했다.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대불산단의 특별 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련해,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목표와 대불산단도 당연히 포함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대담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제창 여론 뜨거운데... 박승춘 보훈처장 "내 선 넘었다" 그렇다면 가로막는 '선'은 누구?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밝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최근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과 제창 문제에 대해 "내 선을 넘었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사실상 박근혜 정부 차원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및 제창을 막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4면>
2일 국민의당 원내대표로 내정된 박지원 의원은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달 28일 국회 법사위에서 박승춘 보훈처장을 만나 '올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기념곡으로 지정되고 제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며 "하지만 박 처장이 '그 문제는 이미 내 선을 넘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기념곡 지정을 못하게 하는 주체가 국

무그러나 대통령이라는 말이냐'고 따져 자 박 처장은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기만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3년 여야가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박근혜 정부의 실질적인 반대로 장기 표류하고 있다"며 "올해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될 수 있도록 정부 압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을 위한 야권의 공조와 정부 차원의 태도 변화 등이 주목되고 있다.
한편, 국민의당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올해 5·18 기념식 이전에 기념곡으로 지정하기 위해 여야에 원-포인트 국회 개정을 요구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오월 ... 옛 도청 앞 분수대 가동한다

하루 7차례...LED로 야간조명

광주시 동구는 2일 5·18광주민주화운동의 대표 사적지인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를 이날부터 오는 10월까지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분수대는 오전 9시부터 하루 7차례 가동되며, 오후 7시부터 야간경관 연출을 위한 LED 수중조명등으로 밤하늘을 밝힌다.
지난 1971년 설치된 옛 전남도청 분수대는 지름 19.3m, 높이 2.32m로, 5·18 민주항쟁 사적지 27곳 가운데 유일하게 원형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는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과 학생들이 계엄군에 맞서 최후까지 항쟁했던 장소로 민주화운동을 이끌어낸 상징적인 유



적이다. 지난 2010년 주변 냉각탑 붕괴 사고로 분수 가동이 중단됐다가 지난해 9월 정비해 마치고 44년 만에 본래 모습을 되찾았다.
동구 관계자는 "5·18 추모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가 계획돼 있는 5·18민주광장에서 분수대가 가동되면 문화전당과 5·18 민주광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문화재 보수 보조금 형평 적발 ▶6면
- 자동차 산업 밸리 - '삼합차' ▶18면
- 서재응·최희섭 15일 은퇴식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다가치 그린 동네만들기 모바일 앱 서비스 개시

환경문제에 대한 실천과 참여로 깨끗한 광주시를 만들어주세요.

환경지킴이 활동은 하면 포인트가 쑥~욱~쑥

eco.gwangju.go.kr

일반회원 가입 절차 및 혜택

- 회원 가입: 다가치그린 앱 설치, 에코포탈 홈페이지(eco.gwangju.go.kr)
- 포인트 적립: 쓰레기 방지신고, 공중화장실, 약속터 평가, 재활용품 나눔, 환경캠페인 참여, 동네환경개선사업 펀딩
- 포인트 사용: 동네환경개선사업 기부, 다가치 그린 가맹점

다가치 그린 가맹점 가입 및 혜택

- 회원 가입: 다가치그린 앱 설치, 에코포탈 홈페이지(eco.gwangju.go.kr)
- 가맹점 등록: 가맹점 앱 설치 및 등록
- 가입업종: 전 업소
- 포인트 적립: 할인금액 전부 가맹점 포인트로 적립
- 혜택 1: (재)광주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신청시 보증료율 우대, 최종산출된 보증료율에서 0.2% 감면
- 혜택 2: 시 홈페이지 가맹점 현황 게시
- 포인트 사용: 동네환경개선사업 기부, 다가치 그린 가맹점